

한빛원전 '핵안전 마지노선' 넘나 세관 결함 허용률 8%→18% 추진

〈증기발생기 관막음〉

설 연휴 전 원안위에 기습 상향 요청...지역 주민·환경단체 반발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광 한빛원전 3~4호기의 가동중단을 피하기 위해 증기발생기 관막음 허용률을 높여달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등 원전 선진 국가에서조차 수십 년 전부터 사용을 중단한 인코넬 600으로 제조된 한빛 3~4호기의 증기발생기는 그간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 원자력 전문가 등으로부터 꾸준히 위험성 경고와 즉각적인 가동 중단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한수원은 되레 안전을 위해 정해 둔 관막음 허용률을 상향시키는 수순에 돌입,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6면〉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빛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달 17일 기습적으로 한빛 3~4호기 증기발생기 관막음 허용률 상향을 내용으로 한 '원전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를 원안위에 제출했다. 한수원은 설계 당시 8%로 제한했던 관막음 허용률을 18%로 상향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기발생기를 구성하는 세관 중 18%까지는 결함(균열·파손)이 생기더라도 해당 세관을 막아버린 뒤 원전을 가동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다.

엄청난 위험성을 안고 가동되는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증기



미국, 수십년전 사용중단 인코넬 600으로 제조 3·4호기 증기발생기 관막음 비율 한계 육박 한수원, 가동중단 막으려 위험한 변경 추진 국민 안전 크게 위협

발생기를 구성하고 있는 8214개의 세관(전열관)의 관막음 허용률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웃돌 경우 즉각 원전 가동을 멈춰야 할 정도로 안전성과 직결된 사항이다.

세관이 파열할 경우 외부와 순환되는 계통을 통해 방사성 물질이 외부 환경으로 유출되고, 나아가 다수의 세관이 파열할 경우엔 냉각재 고갈에 따른 노심용융이나 다량의 방사성 물질 외부 유출을 야기하는 재앙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게 원자력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 같은 위험성 때문에 한빛 3~4호기 증기발생기의 관막음 허용 비율은 설계 당시 8%로 제한했으며, 국내 원전 대다수도 관막음 허용률을 5~8%로 규제하고 있다.

한빛 3~4호기 관막음 비율 현황(지난해 10월 기준)은 ▲한빛 3호기 A증기발생기 2.75%(210개 관막음), B증기발생기 2.81%(215개) ▲한빛 4호기 A증기발생기 5.37%(415개), B증기발생기 4.94%(385개) 수준으로 2018년부터 조기 교체가 예정돼 있었다.

한수원은 한빛 3~4호기 증기발생기 관막음률이 허용치에 근접하자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의 눈을 피해 허용률 상향 신청 시기를 저울질 해왔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즉각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관막음 허용률을 상향시키는 것은 증기발생기 자체에 부담을 줘 세관이 동시에 파단(깨지는 현상)을 가져와 원전 중대사고(냉각재 고갈)에 따른 노심용융, 방사성 물질 외부 유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원전 설계 경험이 있는 이정윤 기술사(원자력과 미래 대표) 등은 "원전 핵심 설비인 증기발생기 관막음 허용률 상향은 주민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정월대보름 쥐불놀이

정월대보름을 앞둔 지난 2일 저녁 함평군 월야면 달맞이공원에서 아이들과 주민들이 한해 풍년을 기원하고 액운을 쫓는 쥐불놀이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문화전당 5년간 정부가 운영한다

문화전당특별법·김영란법 국회 통과... '어린이집 CCTV 의무화'는 부결

국회는 3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문화전당 특별법) 개정안과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전국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관련기사 2·3·4면〉

국회는 이날 문화전당 특별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61명 가운데 123명 찬성, 16명 반대, 2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국가 소속 기관으로 하되 일부 운영을 법인에 위탁할 수도 있도록 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5년 후 정부는 성과평가를 한 후 전부 위탁한다'는 부칙 제2조가 포함돼 있어

광신대학교

- 보육교사교육원 제23기 학생모집
- 여자신학원 (여전도사 과정) 모집
- 목회자 심리상담사 과정 모집
- 사모상담 전문지도자 과정 모집

3월 5일 개강

☎(062)605-1112, 1023

■ 문화전당 특별법 내용

- ① 정부운영 평가 후 위탁 결정
- ② 예산 국고지원 명시
- ③ 공적개발 원조 예산 확보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또 김영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8월16일 당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전국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국회는 이와 함께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비리를 감시·적발하는 임무를 수행할 특별감찰관 후보로 이석수·임수빈·이광수·변호사 추천안을 각각 가결했다.

선거구제 개편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처리됐다. 정계특위는 여야 동수 20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8월31일까지 운영된다. 이 외에도 국회 클라우드법과 마이스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유아교육법 개정안, 국립대학 회계설

치·재정운영법 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 소관의 주요 법안들은 줄줄이 처리되지 못했다. 특히 장애인 법안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애초 복지위 안보다 법사위에서 수정돼 법사위 월권 논란이 불거진 끝에 본회의에서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출석의원 과반수(86명) 찬성 미달로 결국 부결됐다. 이날 법사위원들은 보육교사 인권 침해 등을 거론하면서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해 사용하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조항을 삭제했다.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도입 의무화법 골자도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복지위에서는 내용상 심사가 끝났음에도 법사위에서 처리를 보류했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는 전날 밤 협상을 벌여 야권법 개정안과 김영란법 등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나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영유아보육법·아동복지법 등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주거복지기본법 등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최현배기자 jkpark@kwangju.co.kr

국회 국제경기위, 광주 U대회 남북단일팀 촉구

오는 7월 개막하는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남북 단일팀 구성에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선 의원)는 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주시로부터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남북단일팀 구성과 북한응원단 참가, 대회 안전도 제고를 위한 정부와 광주시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해자 의원은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남북단일팀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이 최근 '단일팀을 구성하려면 최소

한 대회 개최 3개월 전에 남북이 합의를 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는데 남북단일팀 무산된 것이 맞느냐'고 따졌다. 이어 "대회가 오는 7월3일부터인데 대회 개최 3개월 전까지 합의는 봐야한다 해도, 아직 3월 한 달 더 노력해볼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일부에서는 남북단일팀 구성이 어려운 이유가 남북단일팀이 될 경우 대회에 참가할 우리 선수들이 반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단일팀을 구성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며 "남북단일팀을 구성하는 문제는 민족의 문제이고 우리 국민의 문제인데 문제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소속으로 특위 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열린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경우 시장의 적극적 역할이 북한팀 참가를 이끌어 내는 원동력이 되었지만, 지방선거 이후 시 정부가 바뀌면서 소극적 태도를 보이자 결국 북한 응원단 파견은 이뤄지지 못한 사례가 있다"며 "대회 개최지의 광역시장의 적극적 역할이 대회의 성공개최를 이끌어 내는 만큼 윤관현 시장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윤관현 시장은 "정부, 시민사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밝혔으며 김중 문화부 2차관은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5년 3월호

2월 28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KTX, 문화광주와 통하라

아시아문화전당과 KTX의 윈윈 프로젝트 기대

KTX가 좀허준 거리, 승부는 콘텐츠의 매력으로 걸작공연, 명품전시 "2015광주, 문화로 설린다"

BACK TO THE 90'S

기획1
대중문화 대세, 90년대 복고 신드롬

'90년대 파워' 이끄는 X세대 제작자들과 '신세대 중년'

동네서점, 문화향기 피어나네

책 매개로 사람과 문화를 잇는 공간으로 변신 책 애호가들의 특별한 놀이터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예향 초대석

'광주항쟁에서 시대정신 찾는 철학자 김상봉'

남도의 장인들

대나무 위에 그려내는 뜨거운 예술혼의 불그림

낙죽장 김기찬

도시재생, 문화에게 물어봐-국내외현장을 가다

가차 많은 플랫폼에 채워진 세기의 명작들

파리 오르세 미술관

사람이 브랜드다

가수 김광석과 대구 가객의 거리로 그리운 안고 찾아드는 사람들

예향이 만난 이 사람

번역, 공연으로 유럽무대에 편소리 소개하는 페조디에-한유미 부부의 각별한 판소리 사랑

노중현의 세계 문화도시 기행

새롭게 떠오른 문화수도

독일 베를린

문화 화제

10권의 태백산맥 베껴쓴 3인 필사로 새긴 의미들

회가의 작업실

연필 끝에서 품돌대는 욕망 '용과 여인'을 그리는 화가 박소빈

스타 데이트

'호구의 사랑'서 순정남 연기, 배우 최우식

"호구랑 재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아시아스토리 로드-말레이시아

공동체의 삶과 역사가 생성한 공간

이반족의 롱하우스